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 맞춤형 기술 교육·전문 상담 확대

- 권재한 청장, 2월 19일 화훼농장 운영 청년농업인 만나 소통
- 지역 기반 창농 활성화·판로 구축 지원 확대에 지속 노력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2월 19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에서 화훼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업인을 만나 영농 상황을 살피고, 청년농업인 유입 확대와 안정 정착에 관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청년농업인 이강훈 씨(34세)는 가업을 승계해 독립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으며, 청년농업인 단체인 전북 4-에이치(H)* 연합회장을 맡아 청년농업인 교류 증진과 지역 농업·농촌 활성화 등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있다.

*4-에이치(H) : 1947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청소년 교육 운동으로 '지·덕·노·체'라는 4-H 이념 실천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지역 사회 발전 등을 도모. 4-H 회원은 청소년, 대학생,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청년농업인 회원은 농업과 농촌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문 농업인으로서 자질을 배양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음.

이날 권 청장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 정착에 필요한 지원책 모색, 지역단위 4-에이치(H)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권 청장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기술 부족으로 정착 초기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 농업기술원과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해 맞춤형 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대학·농산업체 등과 협력해 지역 기반의 창농 활성화와 판로구축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모임체를 확대하고, 농촌진흥청의 분야별 전문가 또는 농업기술명인 등 선도 농업인과의 결연(멘토링)을 확대해 효과적인 기술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청년농업인 맞춤형 교육과 전문 상담(컨설팅)을 확대하고, 청소년, 대학생, 청년농업인이 4-에이치(H)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 농촌진흥기관, 한국4-에이치(H) 중앙본부와 함께 저변 확대에 노력할 계획이다.

붙임. 청년농업인 운영 농장(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방문 계획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책임자	과 장	노형일 (063-238-0910)
	지도정책과	담당자	지도사	정종민 (063-238-0942)
				

붙임**청년농업인 운영 농장(전북 완주) 방문 계획**

- 일 자 : 2025. 2. 19.(수)
- 장 소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 내 용 : 대설·한파에 따른 겨울철 꽃 생산 현황 점검 및 청년 농업인 영농 유입 확대·안정 정착 방안 의견 청취
- 세부 일정

시 간	분	내 용
14:30~15:00	30	◦ 청년농업인 운영 화훼 농장 방문 및 현장 소통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청운플라워'